

다사다난했던 2011년도 어느덧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2012년 임진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를 돌아켜보면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밖으로는 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폭발, 중동혁명과 절대권력자들의 몰락, 미국·유럽 등 세계경제위기 지속, 김정일 사망 등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동해안에 백년만의 대폭설이 내린 것을 비롯해 구제역파동, 계속되는 남북관계 경색, 무상급식 투표 찬반논란, 경기침체 장기화 등이 있었습니다.

행정과 주민의 갈등 숙제

인간은 폭설과 지진 등 자연의 대재앙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 밖에 없지만, 서로의 이해관계와 끝없는 욕심으로 대치상황으로 치달아 결국 서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유지하며 영원할 것 같았던 독재자들의 잇따른 죽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우리지역에서는 금강산 육로관광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어

족자원 고갈로 인한 어촌 경제 황폐화, 인구 3만명 붕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행정과 주민들의 갈등 등 많은 숙제를 남겼습니다.

반면 희망을 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정연수원의 고성유치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으며, 3수 끝에 성공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 1조달러 달성 등 어려움 속에서도 일궈낸 한국인만의 끈기가 돋보이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어가고 있는 고

성군에서 군민들의 한결같은 마음과 단합된 힘으로 국회의정연수원을 유치한 것은 작지만 함께 뽐낼 뭉치면 무엇이든 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또 정치적·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강원도가 세번의 도전 끝에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것은 하고자하는 강한 의욕과 집념이 있다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꿈이 현실로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줬습

신년사

발행인 윤승근



용이 승천하듯 건승하는 새해

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지난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체질을 강화시키며 위기에 대처하는 법을 배웠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과 인내를 이겨내면 반드시 소망이 이뤄진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사람이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꿈으로 그치지만, 여러 사람이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2012년 임진년 새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겨나가겠다는 마음 자세만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임진년 새해에도 저희 고성신문 임직원 모두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지역언론으로서의 소명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민들의 행복과 고성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임진년 새해에도 가정과 일터에서 하시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용이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듯 모두가 건승하기를 기원합니다.

고성군 지난해 시책평가 우수

27개 부문서 수상... 인센티브 5억2천만원 받아

고성군이 지난해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 및 기관이 주관한 27개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 총 5억2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제13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에서 아름다운 화장실가꾸기 동상, 2011 한국 문화·관광 브랜드 '혁신 문화·관광정책 분야 대상, 2011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대회 최우수기관

선정 등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특별지원금을 받았다.

또 제3회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평가에서 군 단위 종합부문 최우수 기관상과 포상금을 받았으며, 2011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도내 평가에서 군 단위 부문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이밖에도 문화 저변확대 국토해양부 표창, 해양수산시책 유공 강원도 표창,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 34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평가 소도읍 육성사업분야 최우수상,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분야 우수상 등을 받았다.

고성군 관계자는 "지난 2011년 고성군이 많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군민 여러분이 군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준 덕분"이라며 "고성이라는 지역브랜드가 한층 더 확고해진 보람된 한해였다"고 평가했다.

최광호 기자

배움의 열정으로 꽃피운 도자기공예

정신장애우 도자기공예 작품전시회... 1월 30일까지 보건소

정신장애우들이 배움의 열정으로 꽃을 피운 도자기공예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2011년 정신장애우 도자기공예 작품전시회'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새해 1월 30일까지 고성군보건소 2층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주 1회 진행된 도자기 공예프로그램에 참여한 227명의 정신장애우들이 만든 접시,

화병, 머그컵, 그릇, 화분 등 100점을 선보인다.

또 방문객을 대상으로 생활도자기 및 소품공예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도자기공예 체험관도 운영된다.

한편 정신장애우들은 이번 작품전을 개최하기까지 장윤숙 전문강사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자기문화디자인과 김동희 겸임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끝



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작품을 통해 희망을 그려냈다.

최광호 기자

대진중 창의적 봉사활동

학교예술제 이익금으로 까리타스요양원 방문

대진중학교 학생들이 학교 예술제 먹거리 장터 운영 이익금으로 지역 노인 요양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춤과 노래를 선사하며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 줘 귀감이 되고 있다.



대진중학교 학생들이 까리타스요양원 어르신들에게 안마를 해주고 있다.

대진중학교 학생 30명은 지난해 12월 17일 까리타스마테오 요양원을 방문해 학교 예술제 먹거리 장터 이익금 30여만원으로 위문품을 전달하고, 예술제 무대에 올렸던 춤과 노래 및 특기적성시간에 배운 악기를 연주하는 작은 음악회를 선사했다.

학생들의 이날 봉사활동은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과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전일제 외부 봉사활동 통해 관심과 배려, 사회봉사의 마음을 길러주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가한 일부 학생들은 어르신들의 식사 수발과 말벗되어 드리기에 참가하는 도중 할머니들의 마음 속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으며, 자신의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 효도를 하겠다는 마음을 다지기도 했다.

대진중학교는 앞으로도 자발적 봉사정신 함양을 위해 학교 자체적으로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창의적 체험 봉사활동으로 연 3회 정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원광연 기자